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보감회, 예정이율 자율화 제도 도입 예정

□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10년간 동결되었던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.

○ 현행 보험상품의 예정이율\*은 지난 1999년 보감회가 규정한 '연 복리 2.5%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'는 규정에 묶여 대부분 최대 2.5%까지로 책정되어 있음.

\*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상품 설계 시 자산운용수익률을 예측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최저이율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.

○ 그러나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이차손 문제가 심각해지자 업계를 중심으로 예정이율 책정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.

□ 예정이율 자율화로 보험료 인하 효과에 따른 판매 증가가 예상되지만, 고금리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회사들의 지불능력 부실도 우려되고 있어 현행보다 약 1%p 높은 '평가이율 제도'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전문가들은 예정이율 상한선이 완화 내지는 철폐되면 현행 2.5%인 예정이율은 최대 3.5%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20~30%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겨 사망보험 등의 기존 보장성 보험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.

○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고금리 상품 출시로 인한 출혈경쟁이 자칫 지불능력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음.

○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감회는 2.5% 예정이율 상한선을 철폐하되, 업계 스스로 예정이율 책정에 있어 새로운 상한선인 이른바 '평가이율(약 3.5% 정도로 추산)'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7/16)